

碩士學位論文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 방안

指導教授 玄 琬 松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朴 美 貞

2005年 8月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 방안

指導教授 玄 琬 松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朴 美 貞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朴美貞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국문초록 >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 방안

朴 美 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玄 琬 松

듣기 능력은 영어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본 능력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듣기 능력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노출되어 구두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수동적인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입력되는 언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효과적인 듣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과, 초등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고 효과적인 듣기 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듣기지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듣기의 개념, 특징, 과정을 살펴본 다음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에서의 듣기 성취기준과 듣기 지도 방법과 3~6학년 초등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듣기지도의 실태에 관한 설문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에서의 듣기지도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듣기 지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 첫째, 세부 듣기 능력을 위한 지각 청취 지도의 필요성, 들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째,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의 필요성, 셋째, 절대적인 듣기 입력시간의 부족에 따른 집중적 듣기지도의 필요성, 넷째, 아동의 수준차와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 수업을 위한 영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균형있는 듣기 연습을 위한 지각 청취 지도를 위하여 단어와 문장 단위의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노래와 챗트를 활용한 듣기 지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셋째, 집중적 듣기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수준별 받아쓰기 제안한다. 넷째, 과인수 학급, 아동의 수준차에 따른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 수업을 위한 영어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어학실습실의 설치를 제안한다.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좀더 나은 듣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듣기의 성격	3
2. 듣기 지도의 원리	12
III.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25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듣기’ 성취기준	25
2. 초등영어 교과서에서의 듣기 지도	29
3. 초등영어 교과서의 듣기활동 유형분석	31
IV. 초등영어 듣기지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39
1. 초등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	39
2.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방안	54
1) 지각 청취(listening for perception)지도	54
2)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	59
3) 집중적 듣기 지도	62
4) 듣기 입력의 장으로서의 어학 실습실의 설치	63
IV. 결론	6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설문지

표 목 차

< 표 1 > 듣기 과정	11
< 표 2 > 각 학년별단원의 기본 체제	30
< 표 3 > Let's Review/Review 의 학년별 듣기 활동 내용	32
< 표 4 > 3·4학년 Let's play 의 듣기 중심 게임 유형	34
< 표 5 > 5·6학년 Activity의 듣기 중심 게임 유형	35
< 표 6 > 교과서에 나타난 학년별 듣기 활동 유형	36
< 표 7 > Let's Play/Activity에 나타난 학년별 듣기 중심의 게임 비율	37
< 표 8 > 설문 조사 표집 현황	39
< 표 9 >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현황	40
< 표 10 > 듣기 지도 실태 설문 문항 구성	41
< 표 11 >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중점 지도	42
< 표 12 > 단위 수업당 듣기 활동 시간	42
< 표 13 >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듣기 자료	44
< 표 14 > 듣기전 활동 적용 빈도	45
< 표 15 > 듣기중 활동 지도 방법	46
< 표 16 > 흥미있는 듣기중 활동과 효과적인 듣기중 활동	46
< 표 17 > 듣기후 활동 지도 방법	47
< 표 18 > 듣기후 활동 적용 빈도	48
< 표 19 > dialog 화면 제시 방법	49

< 표 20 > 자막 제시 방법	49
< 표 21 > 듣기 이해 장애 요인	50
< 표 22 > 듣기 평가 방법	51
< 표 23 > 듣기 평가의 곤란 요인	52
< 표 24 > 듣기 지도의 곤란 요인	52
< 표 25 > 초등학생을 위한 청취 사이트	60



I. 서론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말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여기에서 말에 의한 의사소통이 9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음성언어보다는 문자 언어교육에 너무 치우쳐 왔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면서 영어교육의 방향이 음성언어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현행 제7차 초등 영어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영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로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문자의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한다¹⁾라고 하여 듣기, 말하기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듣기 능력은 영어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본 능력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듣기 능력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노출되거나 구두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Broughton *et al.*(1978)은 학생이 발화할 모델 양식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모국어에 없는 소리나 외국어 화자의 강세, 리듬, 억양을 자연스런 문장으로 말하길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²⁾.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만족스럽게 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듣기에 관한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음성언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 285.

2) G. Broughton. *et al.*(1980),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ondon: Routledge & K. Paul. p. 65.

고경석(2003)은 듣기가 수동적인 기능으로만 간주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로 듣기 자체가 들려오는 내용의 양이나 속도, 난이도 등을 조절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듣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듣는 도중 쉽게 포기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³⁾. 이로 인해 듣기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해 자신감이 사라져 듣기 능력의 향상에 노력을 덜 기울이게 돼, 다른 언어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듣기 활동은 단순히 소리만을 듣고 인지하며 이해하는 활동보다는 그 반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방법 면에서 특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입력되는 언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효과적인 듣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제 교실에서의 듣기지도는 테이프, 비디오, CD-ROM 등 시청각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거나 들려주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기타 듣기 활동은 다양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과, 초등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고 효과적인 듣기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지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에서의 듣기지도와 영어교과가 도입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듣기지도의 실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듣기 지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듣기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3) 고경석(2003), “초등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듣기 지도”, 「교육논총」, 22권. 경인교육대학교, p. 1.

Ⅱ. 이론적 배경

1. 듣기의 성격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듣기는 새로운 언어를 접할 때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능이다. 이는 언어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축할 자료를 제공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표현할 기반을 형성해 준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외국어 학습의 기초에 듣기를 강조하고 있다.

Krashen and Terrell(1983)은 듣기능력이 충실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말하기 능력은 듣기 능력이 충분히 되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표현은 이해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여 듣기를 강조하고 듣기 능력 개발을 위한 입력 자료를 중요시 하였다⁴⁾.

Rivers & Temperley(1978)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대화에서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며 많은 모국어 화자들도 집중력, 자기중심성이나 짧은 기억력 때문에 듣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인이 의사소통 활동 과정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다른 언어기능(말하기 30%, 읽기 16%, 쓰기 9%)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이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듣기 기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듣기를 수동적인 기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듣기 능력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듣기의 개념과 듣기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4) S. D. Krashen & T. D. 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and Alemany, pp. 58~60.

5) W. M. Rivers & M. S. Temperley(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62.

1) 듣기의 개념

우리가 언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소리를 감지하는 물리적인 단계에서 출발해서 소리의 흐름 속에서 단어를 이루는 분절을 인식하고 1 단어간의 구문적인 구조와 언어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그 속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과거에는 듣기란 수동적인 기술로서 인식되었으나,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듣고 이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듣기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배두본(1997)에 따르면 ‘듣기’ 라는 말은 영어로 hearing, listening, listening comprehension 등의 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 조용한 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밖의 소음을 듣는 것은 단순한 듣기 즉, hearing이지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테이프를 듣거나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행동은 listen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 교육에서 듣기는 일반적으로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 과정을 말한다⁶⁾.

이완기(2000)는 영어의 hearing과 listening을 한문의 청(聽)과 문(聞)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⁷⁾. hearing이 소리의 물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소리 인식’을 뜻하는 말이라면, listening은 소리의 의미적 측면에 중점을 둔 ‘청해(聽解)를 뜻하는 말이다. “Can you hear me in the back?” 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뒤에 앉은 사람, 내 말이 들립니까?” 라는 뜻이다. 즉 나의 목소리가 뒤에까지 도달하느냐고 묻는 말이다. 그러나 listening은 들려오는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가리킨다. “Listen to the tape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라고 했다면, 이 말은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뜻이다. hearing이 청(聽)에 해당하는 ‘소리 듣기’ 라면, listening은 문(聞)에 해당하는 ‘의미 듣기’ 라고 할 수 있다.

6) 배두본(1997), 「초등학교 영어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p. 291.

7) 이완기(2000),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pp. 204~205.

이러한 맥락에서 Helgesen(2003)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listening과 hearing의 차이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⁸⁾.

Listening is an active, purposeful process of making sense of what we hear.

즉, listening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what we hear)를 가지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능동적이고 유목적적인 과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듣기’란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말소리(speech sound)를 두뇌가 인식하고 그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거나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듣기는 청자가 들려오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 요지와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들은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준비하거나 반응을 하는 것이므로 이해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듣기의 특징

오늘날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져서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TV 방송이나 영화, 공공장소에서의 안내방송 등에서 우리는 영어의 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듣기는 들려오는 내용의 양이나 속도를 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언어 기능으로서 기본적으로 ‘말’을 듣는 일이므로 말(음성언어)의 성격과 글(문자언어)의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듣기에 도움이 된다. 김진철 외(1999a)에서는 이러한 듣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⁹⁾.

8) Marc Helgesen(2003), "Listening", in David Nunan ed.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 Grow-Hill, p. 24.

9) 김진철 외(1999a), 「초등영어 교수법」, 서울: 학문출판(주), pp. 157-161.

첫째, 듣기를 위한 말은 글과 달리 한순간에 사라진다

글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라가다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급한 일을 위하여 잠시 미루었다가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은 지나간 것을 청자가 임의로 되돌려 다시 들을 수 없다. 또한 듣는 순간 외부의 방해나 소음으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어야 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해 들어야 한다.

둘째, 말은 글에 비하여 잉여적인 정보를 많이 포함한다

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잉여성(redundancy)을 배제하지만 말은 잉여적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잉여성이란 어떤 소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성질이다.

언어는 잉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의 잉여성으로 인해 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귀를 기울여 듣거나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셋째, 듣기는 신체적, 물리적 반응에 많이 의존한다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는 초기 단계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때는 언어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지만 표정, 몸짓, 손짓, 눈 맞춤과 웃음 등 신체적, 물리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반응한다.

넷째, 듣기는 의미 협상을 통한 능동적인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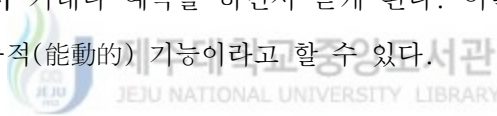
듣기는 화자가 발화하는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화자의 세계, 청자 자신의 세계, 그리고 그들이 처해있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엮어지는 의미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자는 자신의 세계는 물론 화자의 세계와 그들이 처한 시간-공간과의 협상을 통해서 의미를 추출해 내야 한다.

다섯째, 듣기 기능은 전이 효과(transfer effect)가 크다

말하기는 이해를 위한 듣기가 충분히 되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나 듣기와 읽기가 같은 이해 기능이지만 언어습득 과정에서 음성이 문자를 선행한다는 주장들은 듣기 기능이 다른 언어 기능으로의 전이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이완기(2000)는 듣기의 과정은 정신작용이므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으나 사람의 귀는 녹음기와는 달리 선택적으로 들으며,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상생활에서 듣기는 항상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소리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⁰⁾. 듣기 이해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걸려져서 기억 속에 그 의미의 요점만 남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나 구체적인 언어표현, 문법구조 등은 무시되거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청자가 어떤 내용을 들을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앞에서 들은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하거나 또는 연관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다음에 들려올 내용에 대해서 기대나 예측을 하면서 듣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듣기는 수용적(受容的), 능동적(能動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 듣기의 과정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와 말을 듣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듣는 순간에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것은 당시에는 기억을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할 수 없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입력이 어떻게 하여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 듣기 과정을 살펴보자.

듣기 이해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는 다음의 Clark & Clark(1977)의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언어 이해를 심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10) 이완기(2000), 전계서, pp. 205-207.

- (1) [Hearers] take in the raw speech and retain a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it in ‘working memory’ .
- (2) They immediately attempt to organize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into constituents, identifying their content and function.
- (3) As they identify each constituent, they use it to construct underlying proposition, building continually onto a hierarchical representation of propositions.
- (4) Once they have identified the propositions for a constituent, they retain them in working memory and at some point purge memory of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In doing this, they forget the exact wording and retain the meaning
(from Clark and Clark, 1977, p. 49.).¹¹⁾

즉, 청자는 귀에 들어오는 원자료의 음운표상을 기억하고 그 표상을 내용과 기능을 확인하면서 언어의 구성소로 조직하고 이어서 그 구성소로 명제를 구축하고 기억해 가는 과정이 듣기 과정인 것이다.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많은 경우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청자가 발화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발화 내용과 화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의미 이해의 과정은 대화 당사자들간의 관계와 인간의 내재적 지식 조직을 둘 다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Brown(2001)은 듣기 이해의 과정을 인지적, 정의적 기제(mechanism)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고 Clark & Clark(1977)와 Richards(1983)를 토대로 다음 여덟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순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1) 청자는 소위 “초기 발화” 를 처리하여 그 “이미지” 를 단기 기억에

11) M. Rost (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NY: Longman, p. 7에서 재인용.

저장한다.

- (2) 청자는 처리 중인 발화의 형태를 결정하고 받아들인 메시지를 적절히 해석 “가공” 한다.
- (3) 청자는 발화의 형태와 맥락, 내용을 검토하여 화자의 목적을 추론한다. 가령, 설득인가 아니면 요구, 농담, 인정, 부인, 정보 전달인가 등을 추론을 통해 결정한다.
- (4) 청자는 현재 듣고 있는 말의 주제와 맥락에 관련된 사전 지식(혹은 스키마)을 회상한다. 기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인지적 연상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메시지를 그럴 듯하게 해석한다.
- (5) 청자는 들은 말에 축어적 의미(literal meaning)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청각기관이 지각한 표면 구조에 대한 일련의 의미론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언어의 축어적 의미와 의도된 의미(intended meaning)는 일치한다. 제2언어 학습자의 경우는 목표어의 표면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 (6) 청자는 들은 말에 의도된 의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청자가 화자의 의도된 의미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함으로써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의 핵심은 지각된 의미와 의도된 의미를 일치시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7) 청자는 정보를 단기 기억에 보유할 것인지, 혹은 장기 기억에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8) 청자는 초기 발화 정보의 언어 형태적 측면을 제거한다. 99%의 화행(speech act)에서 단어와 구, 문장은 빠른 속도로 잊혀진다.¹²⁾

한편 김진철 외(1999a)는 듣기가 3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¹³⁾. 이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소리가 입력되더라도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12) H. D. Brown, (2001), *Teaching by Principles*(2nd ed), NY: Pearson Education, pp. 249~250.

13) 김진철 외(1999a), 전게서, pp. 161~163.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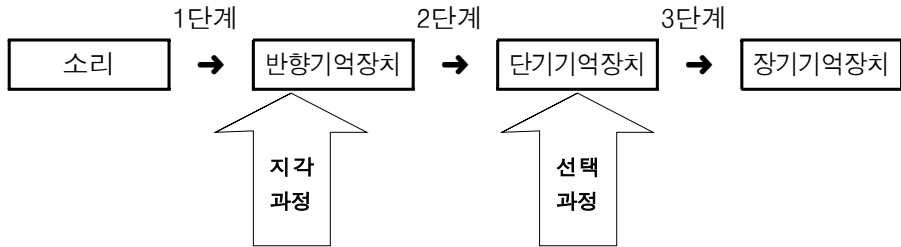
첫째 단계는 소리가 청각 기관에 들어와 반향 기억(echoic memory)장치에 남는 단계이다. 소리가 반향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은 매우 짧아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순간 사라지고 말아 기억할 수 없다. 반향 기억 장치에 들어온 소리가 지각 과정(perceptual process)을 거치면 두 번째 단계인 단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지각 과정은 단순히 소리의 입력에 의한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의 틀을 근거로 의미를 형성하는 화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각 과정에서는 주의 집중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 유입된 입력 자료를 처리할 틀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들은 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들은 반향 기억 장치에 닿자마자 사라지고 만다.

둘째 단계는 반향 기억에서 지각 과정을 거쳐 의미 단위를 형성한 소리가 단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단기 기억 장치 속으로 들어온 정보라도 규칙적, 간헐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선택된 정보만이 장기 기억 장치 속으로 들어간다. 선택과정에서는 대화를 듣고 화자의 목적이나 자신의 목적과 관련된 요소를 대화 속에서 끌어내야 하는데 2~3초의 짧은 순간에 들어온 입력은 기존의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관련되어 검색되고 비교되어 의미를 추출하게 된다. 의미가 추출되면 들었던 실제 단어는 사라지고 중요한 의미만 남는다.

셋째 단계는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선택 과정을 거친 정보는 장기 기억 장치 속에 저장되는 단계이다. 청자는 이후에 정보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다 단순하게 부호화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듣기 과정



이는 특히 제 2언어를 습득하는 초보단계에 있는 어린이인 경우는 지각체계가 덜 형성되어있고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언어에 많이 노출되어 듣기에 익숙해져야 함을 뜻한다. 많은 언어에 노출되어 듣기에 익숙해져야만 자주 듣고 익숙한 언어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어렵거나 생소한 것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므로 의미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듣기 과정상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더 잘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한편, 듣기이해 과정에서 듣기 자료의 처리 방식은 보통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ing)과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ing), 그리고 이 두 과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상호작용적 과정(interactive processing) 3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상향식 이해 과정은 음운, 어휘, 통사 및 의미론적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음소, 단어, 구, 절, 문장과 같이 음성 정보의 인식의 폭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가며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상향식 과정에 의하면 이중 어느 한 단계에서 분석에 실패한다면 의미파악에 있어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하향식 과정은 주로 모국어 화자와 능숙한 제2언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듣기 이해 방식으로 담화가 일어나는 상황, 문맥, 화제에 대한 청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향식 과정에서는 청자가 문장의 모든 단어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없으나 축적된 사전지식, 발화 상황이나 주제의 맥락

에 기초한 사전 정보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듣기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보면 음소들의 생략, 축약, 변화 등으로 인해 청각적 정보 자체만으로는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상향식 이해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하향식 과정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듣기 이해과정이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상호작용적 과정이다.

즉 청자가 상향식 과정에 의하여 입력된 소리를 분석하다가 어느 한 단계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배경지식이나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지식에 의하여 의미파악을 도와주게 된다. 모국어 듣기 이해의 경우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이해에 실패하지 않는 것은 이 상호작용적 과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 듣기 이해가 말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듣기 이해 과정은 상향식, 하향식 과정이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듣기가 상향식 과정을 전부로 파악했다면, 듣기과정의 분석은 하향식 과정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시키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겠지만, 듣기 과정에서 두가지 방식이 모두 일어나는 만큼 두 기능을 모두 익히도록 해야 한다. 즉, 상향식 과정을 통해서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독자 또는 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일치할 때 하향식 과정에 의해서 융화되기 때문이다.

2. 듣기 지도의 원리

1) 듣기 능력의 발달 단계

듣기 능력은 소음, 잡음, 기타 무의미 하게 들려오는 말을 단순히 듣는 수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능력이다. 영어 학습의 초보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영어를 마치 소음처럼 인식하다가 그 소음 속에서 어떤 순서나 음성의 오르내림을 감지하게 되고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서 많은 말들 중에 친숙한 것을 점차 인식해 나가게 된다. 어휘, 어군(chunk), 구문, 논리적 순서 등에 관한 지식을 얻으면서 전달하는 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판별해 내는 능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EFL 학습자가 영어 듣기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겪는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듣기 능력의 발달단계는 보통 5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Taylor(1982)와 Richards(1983)가 구분한 듣기 능력의 5단계를 중심으로¹⁴⁾ 듣기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리의 흐름(stream of sounds)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아동은 영어의 억양, 음조, 속도 같은 약간의 정보는 인식할 수 있으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구어와 함께 동반되는 몸짓언어(body language)는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최소한의 이해(minimal comprehension)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소리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단어를 인식하게 된다. 점차 음의 순서를 인식하게 되고 들으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넘겨버리고, 알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한다.

셋째는 약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단계(marginal comprehens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나 굳어진 표현 등을 하나의 단위로 배우게 된다. 들은 것을 단기 기억으로 능동적 구문형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초보적 언어 기능을 표현하면서 인사, 만남, 여행, 음식, 혹은 상점 등에서 초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넷째는 실용적 이해와 활용의 초보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절이나 문장도 약간 이해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다섯째는 전반적 이해(general comprehension)의 단계이다.

14) 김진철 외(1999b), 「초등영어지도법」, 서울:한국문화사, p.54.

이 경우는 연결된 말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들은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구도 인지하고 소리나는 대로 기억할 수 있다. 자연적인 상황의 구조를 이해하며,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연스런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2) 듣기 지도의 원칙과 단계별 듣기 지도

(1) 듣기 지도의 원칙

Brown(2001)과 Peterson(1991)는 듣기를 통합적으로 다른 기능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가르칠 때에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Brown(2001)은 듣기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수업 설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



- ① In an interactive, four skills curriculum make sure that you don't overlook the importance of techniques that specifically develop listening comprehension competence.
- ② Use techniques that are intrinsically motivating.
- ③ Utilize authentic language and contexts.
- ④ Carefully consider the form of listener's responses.
- ⑤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listening strategies.
- ⑥ Include both bottom-up and top-down listening techniques.

위의 원리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기능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할 지라도 언어의 개별적인 기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특히 듣기 이해 과정은 외적으로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모든 입력(input) 정보를 학습자들이 흡입(intake)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15) H. D. Brown (2001), *op. cit.* pp. 258~260.

그러므로 효과적인 듣기지도를 위해서는 듣기지도의 원리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듣기 내용 이해에 있어 배경 지식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업 설계시 학습자의 경험과 목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듣기 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셋째, 교실에서 제공되는 듣기 자료는 실생활에서 듣기 특징과 대개 일치해야 한다. 인위적이고 조작된 듣기 자료는 실생활에서 듣기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 이해과정은 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 무엇인가가 이해되었다고 추론할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듣기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섯째, 특히 영어 학습의 초급단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듣기 요령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듣기 전략을 지도함으로써 성공적인 듣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상향식 교수기법은 전형적으로 소리와 단어, 억양, 문법 구조와 같은 음성언어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향식 교수기법은 사전지식의 활성화와 의미 추론, 내용의 전체적 이해와 같은 활동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제한된 교실상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기법을 지향하고 있는 현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활동이 강조되어 소리와 단어, 억양, 문법 구조를 비롯한 언어의 구성요소에 대한 지도가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 물론,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학습자들의 자동적인 언어 처리 능력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상향식 처리와 하향식 처리방식 모두 음성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제한된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지도는 이 두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Peterson(1991)은 ESL/EFL 학습자를 위한 교실 듣기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리들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¹⁶⁾.

첫째, 교실에서 청취시간의 양을 늘려야 한다. 새 학습 자료를 가르칠 때에는 청취를 주요수단으로 이용해야하며, 청취입력은 청자의 현재 청취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것(i+1)으로서 청자가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료에 대해서 말하고 읽고 쓰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이하 TPR)과 자연적 교수법(natural approach) 등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셋째, 전반적 청취와 선택적 청취를 다 포함해야 한다. 청자가 교실에서 들을 때 요지, 주제, 화제, 상황, 장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언어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넷째, 상급 수준의 청취기능을 활성화한다. 청취할 때 배경지식을 불러들여서 이해하는 하향적 처리를 연습시키고, 청취한 말을 제시하기 전에 그 내용, 상황 및 화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한다.

다섯째, 청취이해 과정이 자동화되도록 연습시킨다. 청자에게 익숙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인지와 기억을 형성하고, 선정된 언어 형태요소 초점을 두고 초과학습(overlearning)이 일어나도록 하며, 청취할 때 상향적 처리가 일어나도록 연습한다.

여섯째, 의식적인 청취전략을 발달시킨다. 청자가 듣는 말의 구조적 특징(text features)과 자신이 그 말을 이해하는 과정을 인식하도록 해 주며, 하향적 처리와 상향적 처리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Paulston & Bruder(1976)는 Morley(1971)의 제안을 기초로 일반적인 청취력 수업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¹⁷⁾.

①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s must have *definite goals*

16) 이재희(1994), “국민학교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모형 및 평가 모형”, 차경환 편 (1996), 「영어 청취력 교육론」, 한국영어교육학회, p. 327~328에서 재인용.

17) C. B. Paulston & M. N. Bruder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pp. 129~130.

carefully stated.

- ②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s should be constructed with *careful step by step* planning.
- ③ LC lesson structure should demand *active overt student participation*.
- ④ LC lessons should provide a *communicative urgency for remembering* in order to develop *concentration*.
- ⑤ LC lessons should stress *conscious memory work*.
- ⑥ LC lessons should "teach", not "test".

위의 제안에 따르면 듣기이해 활동에서 먼저 목적이 명확하고 신중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언어 숙달을 위해서는 듣기 과업은 수준별로 제시되 단순한 과업에서 좀더 복잡한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듣는 목적(what to listen for), 장소(where to listen), 때(when to listen), 방법(how to listen)과 같은 듣기를 위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듣기이해의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활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듣기활동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은 듣고 쓰기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생의 흥미나 더 높은 수준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ESL학습자에게 있어 듣기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하는 활동이다. Morley(1971)는 “listening is a receiving, receiving requires thinking, and thinking requires memory; there is no way to separate listening, thinking, remembering.” 라고 하여¹⁸⁾ 듣기에 있어서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재생과 기억력 향상은 듣기지도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듣기지도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8) *Ibid.* p. 129에서 재인용.

(2) 단계별 듣기 지도와 듣기 지도 전략

듣기능력은 학습자가 되도록 장시간 충분히 언어에 노출되는 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많은 경험을 하고 나름대로의 책략을 가지고 있을 때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은 이러한 책략이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교사들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계별 듣기 지도와 듣기 지도를 위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Rivers(1981)는 학습자들은 나름대로의 듣기 전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초급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거치게 될 4단계의 발달 과정에 적절한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¹⁹⁾.

Rivers(1981)가 제시한 발달의 4단계는 다음과 같다.

Stage 1: Identification

Stage 2: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without retention (that is, listening for pleasure with no questions asked).

Stage 3: Identification and guided selection with short-term retention (where students are given some prior indication of what they are to listen for).

Stage 4: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with long-term retention.

다시 말하여 학습자는 목표어 언어음의 의미를 식별하는 단계, 언어음을 식별하며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단계 및 필요한 내용을 단기 기억하거나 장기 기억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배두본(1997)은 EFL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듣기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²⁰⁾.

첫째, 영어와 국어의 구분(discrimination)을 위한 지도

19) W. M. Rivers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 167.

20) 배두본(1997), 전제서, pp. 294~297.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영어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소음이나 잡음에 불과할 뿐이다. 영어를 처음 듣게 되면 음의 높낮이, 강약의 특성 등을 어느 정도 감지하기는 하지만 국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므로 영어의 낱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말과 발음이 비슷한 낱말을 떠올린다든지 우리말의 규칙을 영어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소리의 유형을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영어의 발음 유형이 국어와 다른 점을 인식시키는 지도가 필요하다. 강세와 리듬, 억양은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영어를 자주 들음으로써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강세, 리듬, 억양 등을 점차 인식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언어유희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 영어를 듣고 흉내내고 단순하게 따라하는 행동에 재미를 느낀다. 그러므로 녹음된 자료나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영어와 우리말의 음운적 차이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영어의 의미 확인(identification)을 위한 지도

학생들은 영어를 들으면서 영어의 강세, 음의 고저(pitch)와 억양에 따라 전달되는 소리와 의미 요소를 배우게 된다. 영어는 일반적으로 강세 박자 언어라고 한다. 영어의 리듬(rhythm)이 동시간격적이라는 것은 제 1강세가 거의 같은 시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어의 강세 박자 리듬(stress-timed rhythm)과 억양 패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세는 단어를 높은 음(key)으로 발음되도록 함으로써 의미상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억양패턴에 따라 확신, 의문, 반어, 질문 등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여성을 적절히 포함한 실제적 대화형태의 대화문(dialog)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들려주고, 반복하여 들려 주고 초급단계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느린 정도의 속도로 들려준다. 여기서 정상적인 대화 속도란 1분간 평균 160~190단어를 발화하는 정도를 말하며 약간 느린 속도란 1분간 100~160단어 정도의 속도를 말한다.

셋째, 재미로 듣는 연습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의미를 확인하면서 듣도록 하되 전체의 내용을 빠짐 없이 듣도록 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도록 지도한다. 듣기활동의 목적은 담화내용의 전체를 전부 기억 속에 저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문답활동은 하지 않고 사건과 생각이 발전해 가는 연결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알아듣고자 노력하면서 듣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들은 내용을 재생해 내야 한다거나 토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들려주는 자료를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의 듣기 자료는 짧은 극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설명문, 이야기들로 대화중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추측할 수 있고, 머뭇거림, 말하는 도중 끼어들기와 같은 매우 자연스런 일상적인 대화로 구성된다.

넷째, 단기 기억을 겸한 듣기 연습

학생들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들려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듣고 난후 응답하게 한다. 이는 교사가 준비한 질문(guided selection)을 단기간 과제(short-term retention) 하면서 영어를 듣게 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답이 맞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들었던 자료를 반복해서 들려준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듣기자료는 재미로 듣는 단계에서 사용한 자료와 비슷하나 녹음된 자료인 경우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기억을 겸한 듣기 연습

이 단계는 듣기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학생들이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듣도록 한다. 저마다 다른 영어 듣기의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지역 방언들도 듣도록 한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들은 내용을 충분히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소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

듣기지도는 크게 듣기전 단계(pre-listening), 듣기중 단계(while-listening)활동 그리고 듣기후 단계(post-listening)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듣기전 활동 단계에서 듣기 지도의 초점은 학습자가 듣기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데 있다. 특히 능동적인 듣기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듣게 될 내용을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듣게 될 내용과 관계있는 전반적인 배경지식 또는 선형지식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형적 지식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킨다. 학습자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면 쉽게 주의 집중을 하며 듣기에 몰입하겠지만, 듣기활동이나 목적에 지시가 분명하지 않거나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단순히 듣고 들은 내용을 전부 기억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되어 듣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듣기전 활동은 실제 듣기활동보다 세심하게 고려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듣기중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대화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의미있는 message를 추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영어 소리를 접할 기회가 주어지고, 입력된 듣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난이도를 잘 고려하여 학습자와 관련된 주변의 것이거나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맞는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초등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쉽게 학습동기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어린이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단순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듣기중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관련주제에 대한 관심을 잃기 전에 활동이 끝나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듣기 후 활동은 실제적인 듣기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들로 학습자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이해, 표현, 적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종합하는 과정이다. 수행한 과제의 옳고 그름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습자가 잘못 이해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듣기 이해여부를 점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들은 내용에 대한 주제를 심화, 보충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전이시켜 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언어기능과 통합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듣기 지도의 유형 및 활동

초등학교에서의 듣기 학습은 단순히 소리만을 듣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그 반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아직 말하기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에 대한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부담감을 느껴 흥미를 잃기 쉽다. 따라서 발화를 하기 전까지 언어적인 반응은 못한다고 해도 비언어적 반응을 보이게 하는 듣고 행동하기(Listen & do),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을 기술하고 그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정보듣기(listening for information), 영어의 발음, 강세, 리듬, 억양 등에 익숙해지기 위한 듣고 따라하기(Listen & repeat)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 듣기(listening to stories)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두 관점에서 듣기 지도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Brown(2001)은 듣기 활동 유형을 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에서 무엇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①반복형(reactive)

- 교사가 학습자에게 발화의 표층구조를 듣고 유의미적 과정없이 그대로 반복해 말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듣기 활동
- 예) 발음 연습

②집중형(intensive)

- 담화의 구성요소(음소, 단어, 억양 등)를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요소를 선택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집중해서 듣고 음성언어의 일정한 요소를 가려내도록 요구하는 활동유형
- 확장형(extensive) 활동과 대조를 이룸

21) H. D. Brown (2001), *op. cit.* pp.225-260.

- 청자의 언어 능숙도 단계와 상관없이 상향적 기술(bottom-up skills)을 포함함
- 예) 학습자는 전체 혹은 개별 반복 훈련을 하면서 단서에 귀 기울이며 교사는 이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억양이나 강세, 축약형, 문법 구조와 같은 음성언어의 특징요소에 주목하게 함

③반응형(responsive)

- 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활동 즉 학습자는 교사의 발화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
- 예) 질문하기, 지시하기, 명확성을 요구하기, 이해 확인하기

④선택형(selective)

- 몇 분 이상 지속되는 독백처럼 긴 담화를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것
- 상대적으로 긴 담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집중형 듣기와 구분됨
- 예) 연설, 보도방송, 이야기와 일화, 상호작용 없이 듣기만 하는 대화

⑤확장형(extensive)

- 집중형(intensive)과는 달리 하향적이고 총체적인 이해 기능 신장을 목적으로 함
- 긴 강의나 대화를 듣는 것에서부터 대화를 듣고 전체적인 메시지와 의도를 찾아내는 것까지 활동이 다양함
- 학습자는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필기나 토의와 같은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⑥상호작용형(interactive)

- 학습자가 토의, 논쟁, 대화, 역할극 및 짝 활동, 소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므로 앞서 기술한 5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함
- 듣기 기능은 실제적인 의사소통적 교류를 통해 말하기 기능과 통합되어야 함

Morley(1991)는 듣기 지도 활동을 그 활동을 통해 얻고자하는 의사소통의 결과 (communicative outcomes)가 무엇인가에 따라 ①듣고 동작과 작업을 수행하기 (listening and performing actions and operations), ②듣고 정보를 전달하기 (listening and transferring information), ③듣고 문제해결하기(listening and solving problems), ④듣고 정보를 평가 및 조작하기(listening, evaluating, and manipulating information) ⑤상호작용적 듣기와 문답과정을 통해 의미 교류하기(interactive listening and negotiating meaning through questioning/answering routines), ⑥재미와 즐거움 및 교제를 위한 듣기 (listening for enjoyment, pleasure, sociability)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²²⁾. 이에 따라 EFL 초급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은 ①번 활동부터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마지막 활동으로 순차적으로 활동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듣기 지도 유형과 활동을 응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연습유형을 개발하거나, 듣기 이해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상향적(bottom-up processing)처리, 하향적 처리(top-down processing) 또는 이를 서로 보완하는 상호 작용적(interactive processing)처리 연습을 구성할 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영어듣기지도 내용과 활동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이재희(1994), 전계서, pp. 329-330에서 재인용.

Ⅲ.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본 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초등영어 교과서에서 구현하고 있는 영어 듣기 지도의 내용과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등영어 듣기 성취기준을 살펴본다.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듣기’ 성취기준

7차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는 초등영어 듣기기능의 성취기준은 어조와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하기,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하기,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 추측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성취기준’이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성취 기준은 기본 과정의 성취 기준과 심화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년/단계별 성취기준은 이전 학년/단계의 성취 기준을 누적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초등학교 3학년에 진술된 성취 기준은 그 이후의 학년 및 단계까지 계속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학년별 듣기 영역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3학년 >

- (1)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을 듣고 식별한다.
- (2) 낱말을 듣고 그 대상을 안다.

- (3) 한 문장으로 된 간단한 지시, 명령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
- (4) 개인, 가정, 학교생활에 관련된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5) 짧고 쉬운 내용의 챗트나 노래 등을 듣고 즐긴다.
- (6) 쉽고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의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 (7)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심화과정]

- (8) 낱말들을 듣고, 낱말들간의 의미 관계를 안다.
- (9) 한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을 찾아낸다.

< 4학년 >

- (1)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2)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3) 한두 문장으로 된 명령이나 지시를 듣고 행동한다.
- (4)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단순한 과업을 수행한다.
- (5)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대화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을 안다
- (6)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중심 낱말을 찾는다.
- (7) 쉽고 간단한 역할놀이의 내용을 이해한다.

[심화 과정]

- (8)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의도, 목적을 대강 이해한다
- (9) 두 문장을 듣고,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한다.

< 5학년 >

- (1)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 (2) 쉬운 내용의 설명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 (3)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 (4)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 (5) 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 (6) 기초적인 전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심화 과정]

- (7) 간단한 말을 듣고 상황과 목적을 이해한다.
- (8) 그림에 관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 6학년 >

- (1) 일상생활에 관한 쉽고 간단한 내용의 말을 듣고, 의도나 목적을 이해한다.
- (2) 간단한 대화를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 (3) 간단한 말을 듣고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 (4)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 (5) 이유를 묻고 답하는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6) 대상을 비교하는 쉬운 말을 듣고 이해한다.
- (7) 간단한 전화 대화를 이해한다.

[심화 과정]

- (8)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안다.
- (9) 간단한 말을 듣고 내용의 진위를 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해당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듣기 수준뿐만 아니라 듣기 지도를 위한 다양한 듣기 활동과 과업, 듣기 활동을 통하여 길러져야 할 세부 듣기 능력에 관한 그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면 상급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소재의 선정 범위가 확대되고, 듣기 내용의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학년>의 (4)번 항목, <4학년>의 (2)항목과 <5학년>의 (1)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학년> (4)번 항목

개인, 가정, 학교생활에 관련된 쉽고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4학년> (2) 번 항목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5학년> (1)번 항목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즉, 학습소재가 학습자 개인 중심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에서 주변사람과 사물에 관한 것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좀더 심화된 이해 수준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취기준의 서술내용을 보면 ‘~듣고 이해한다’ 라고 하여 들은 내용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듣기 내용과 관련된 과업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은 학생들의 이해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쉽고 흥미는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듣기의 세부 능력에 관한 언급으로서는 < 3학년 >의 (1)번 항목에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을 듣고 식별한다.’ 라고 하고 영어 학습 초기부터 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인 강세, 리듬, 억양의 인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언어 세부 능력의 학습은 영어 학습 초보자들에게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말 전체의 정확한 의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듣기 이해의 과정과 관련하여 자료에 나타난 소리, 낱말, 억양, 문장 등의 의미를 해석하는 상향식 처리과정(bottom-up processing)과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하향식 처리과정(top-down processing)의 두 가지 능력이 모두 지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학년>의 (6)번과 (8)번 항목에서는 각각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중심 낱말을 찾는

다.’, ‘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의도, 목적을 대강 이해한다’ 라고 하여 학생의 사전 지식, 기대(expectation), 상황 등을 바탕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하향식 처리과정에 해당하는 듣기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 <4학년>의 (9)번 항목에서는 ‘두 문장을 듣고,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한다.’ 라고 하여 상향식 처리 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학생들이 듣기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처리 과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취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과업의 형태, 즉 활동유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초등영어 교과서에서의 듣기 지도



본 절에서는 초등영어 교과서의 듣기 지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는 3~4학년과, 5~6학년은 각각 연간 34, 68시간이 배당되어, 주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1시간과 2시간을 지도하게 되는 셈이다. 배당된 시간에 따라 3~4학년은 8단원, 5~6학년은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은 각각 4차시로 편제되어 있다.

먼저 학년별 단원의 기본체제를 살펴보면 < 표 2 >와 같다.

〈표 2〉 각 학년별 단원의 기본 체제

학년 차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차시	·Look and Listen(1) ·Listen and Repeat(1) ·Let's Play(1)	·Look and Listen(1) ·Listen and Repeat(1) ·Let's Play(1)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1) ·Let's Play(1)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1) ·Let's Play(1)
2차시	·Look and Listen(2) ·Listen and Repeat(2) ·Let's Chant ·Let's Play(2)	·Look and Listen(2) ·Listen and Repeat(2) ·Let's Chant ·Let's Play(2)	·Look and Speak ·Listen and Repeat(2) ·Let's Sing/Chant ·Let's Play(2)	·Look and Speak ·Listen and Repeat(2) ·Let's Read ·Let's Play(2)
3차시	·Look and Speak ·Let's Sing ·Let's Play(3)	·Look and Speak ·Let's Sing ·Let's Read ·Let's Play(3)	·Let's Read ·Let's Write ·Let's Do It. ·Let's Play(3)	·Let's Sing/Chant ·Let's Write ·Let's Play(3)
4차시	·Let's Role-play ·Let's Review	·Let's Role-play ·Let's Review	·Role-play/Activity ·Review	·Role-play/Activity ·Review

위의 교과서의 기본체제 중 듣기지도와 관련 있는 활동은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Review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ok and Listen은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CD-ROM 타이틀이나 녹음 테이프를 통해 영어를 듣는 활동 단계로 그림을 통해 듣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Listen and Repeat(1)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표현을 듣고 따라 말해 보게 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정적인 학습이 보다 능동적이고 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초보의 발화 활동을 도입하는데 있다. Listen and Repeat(2)는 먼저 들었던 기본적인 표현들을 듣고 난 다음 따라 말해 보게 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정적인 학습을 보다 능동적이고 동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매 단원 마지막 4차시에 설정되어 있는 Review는 각 단원이 끝날 무렵에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에 따

른 것이다. 주로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며 간단한 읽기, 쓰기도 제시하여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초등영어 교과서의 듣기활동 유형분석

본 절에서는 3~6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자의 듣기 발달 단계와 흥미를 고려한 적합한 구성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지도와 관련 있는 활동으로는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Review 가 있으나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보고 듣기, 듣고 따라하기로 학년별로 공통적인 지도 유형이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고 활동 유형을 정리한 <표 6>에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Let's Review/Review의 활동과 Let's Play/Activity 의 게임 활동들 중 듣기 기능과 관련한 게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1) Let's Review/Review 단계의 듣기 활동 유형

Let's Review/Review는 각 학년별로 매 단원의 마지막 차시(4차시)에 제시된 활동으로 그 단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 확인하는 연습문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는 듣기 이해 확인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과업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구체적인 듣기 활동 내용을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Let's Review/Review 의 학년별 듣기 활동 내용

학년	단원	활동명	듣기 활동 내용
3	1	Let's review	• 듣고 인사를 나눈 사람끼리 연결하기
	2	Let's review	• 듣고 해당 물건 찾아 색칠하기
	3	Let's review	• 듣고 민주가 받은 선물 선으로 연결하기
	4	Let's review	• 듣고 알맞은 그림에 번호쓰기
	5	Let's review	• 듣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기
	6	Let's review	• 듣고 들은 동물의 수만큼 숫자 쓰기
	7	Let's review	• 듣고 알맞은 그림에 ○표하기
	8	Let's review	• 해당되는 그림에 번호쓰기
4	1	Let's review	• 그림에 맞는 번호쓰기
	2	Let's review	• 듣고 ○,×표시하기
	3	Let's review	• 듣고 선으로 연결하기
	4	Let's review	• 듣고 시계에 시각표시하기
	5	Let's review	• 듣고 맞는 그림 골라 번호쓰기
	6	Let's review	• 듣고 물건, 주인을 연결하기
	7	Let's review	• 듣고 맞는 번호쓰기
	8	Let's review	• 듣고 물건 가격 써 넣기
5	1	Review	• 듣고 상황에 맞는 그림에 v표하기
	2	Review	• 듣고 시간표의 빈칸에 알맞은 과목 넣기
	3	Review	• 듣고 물건의 위치에 v표하기
	4	Review	• 대화상황에 맞는 그림에 번호 쓰기
	5	Review	• 듣고, 건물을 알맞은 장소에 연결하기
	6	Review	• 듣고 알맞은 시각 쓰기
	7	Review	• 대화에서 묘사하는 그림 골라 번호쓰기
	8	Review	• 관련된 그림에 알맞은 번호 써 넣기
	9	Review	• 듣고 물건의 주인을 선으로 연결하기
	10	Review	• 내용에 맞는 그림 골라 순서대로 번호쓰기
	11	Review	•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맞는 번호쓰기
	12	Review	•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번호 쓰기
	13	Review	• 내용에 알맞은 그림에 번호 쓰기
	14	Review	• 대화상황과 맞는 그림에 번호쓰기
	15	Review	• 대화상황 중 나미가 한 일에 V표하기
	16	Review	• 내용을 듣고 진호와 나미가 한 일 연결하기
6	1	Review	• 대화를 듣고 순서에 맞게 그림에 번호쓰기
	2	Review	• 내용을 듣고 인물이 찾는 곳에 표시하기
	3	Review	• 내용을 듣고 알맞은 그림에 번호 쓰기

4	Review	• 대화를 듣고 생일을 달력에 표시하기
5	Review	• 대화를 듣고 물건의 가격 쓰기
6	Review	• 대화를 듣고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기
7	Review	• 알맞은 그림과 단어를 선으로 연결하기
8	Review	• 대화를 듣고 해당되는 그림에 번호쓰기
9	Review	•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번호 쓰기
10	Review	•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표하기
11	Review	• 듣고 그림과 일치하면 Yes, 틀리면 No쓰기
12	Review	•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번호 쓰기
13	Review	• 대화를 듣고 해당그림에 ○표하기
14	Review	•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순서대로 번호쓰기
15	Review	• 대화를 듣고 알맞은 시각 써 넣기
16	Review	• 듣고 제시된 문장에 순서대로 번호 쓰기

2) Let's Play/Activity 단계의 듣기 중심 게임 유형

김기정(2003)의 효율적인 초등영어 지도를 위한 게임연구에서 5-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언어기능의 유형에 따른 게임을 분석한 결과 듣기 기능 중심의 게임은 전체게임의 10.4%,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를 좀더 확대하여 3~6학년의 Let's play/Activity에 나타난 활동유형을 분석하여 초등영어 교과서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듣기 기능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합한 구성 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3, 4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듣기 지도를 위한 게임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3~6학년의 게임 활동을 추출하여 <표 4> ,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참고 활동으로 제시된 게임은 제외하고 기본, 심화, 보충 활동으로 제시된 활동들 중 듣기 지도와 관련된 게임만을 추출하였다. 또, 언어기능에서 듣기, 말하기/ 듣기, 듣기/말하기의 구분은 어떤 기능을 우선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는가에 따라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3) 김기정(2003), "효율적인 초등영어 학습을 위한 게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51.

<표 4> 3·4학년 Let's Play 의 듣기중심 게임 유형

학년	단원	듣기 활동 내용	언어기능	활동 단계
3	2	• 카드집기 • 카드추측하기 • 듣고 관계없는 낱말 고르기	듣기 듣기/말하기 듣기	기본 기본 심화
	3	• 선물주머니 돌리기 놀이 • 선물주고 받기 놀이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기본 기본
	4	• 코코코 놀이하기 • 말 전하기 놀이하기 • 두 문장이 같으면 Yes, 틀리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듣기/말하기 듣기	기본 기본 심화
	5	• 음식 알아맞히기 놀이 • 좋아하는 음식 조사하기 놀이 • 듣고 관계없는 낱말 고르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듣기	기본 기본 심화
	6	• 들은 수 만큼 색칠하기 놀이 • 동물 조사하기 놀이 • 관계없는 낱말 골라 번호쓰기	듣기 말하기/듣기 듣기	기본 기본 심화
	8	• 듣고 알맞은 옷 입히기 놀이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듣기	기본 심화
기본심화보충활동의 총 게임수=46			듣기=9 말하기/듣기=7	
4	1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심화
	2	• 듣고 순서대로 카드 놓기 놀이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듣기	기본 심화
	3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심화
	4	• 시각 빙고 놀이하기 • 시각 알아맞히기 놀이 • 시각 써 넣기 놀이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듣기	기본 기본 기본 심화
	5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심화
	6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심화
	7	• 진실 게임 • 말 전하기 놀이하기	듣기 듣기	기본 기본
	8	• 카드 집기 놀이 • 물건사기 놀이 • 알뜰시장 놀이 • 문장의 뜻이 같으면 Yes, 다르면 No라고 말하기	듣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듣기	기본 기본 기본 심화
기본심화보충활동의 총 게임수=49			듣기=12 말하기/듣기=4	

<표 5> 5·6학년 Activity 의 듣기중심 게임 유형

학년	단원	듣기 활동 내용	언어기능	활동 단계
5	1	• 친구에 대해 조사하기	말하기/듣기	심화
	2	• 말 전하기 놀이	말하기/듣기	기본
	3	• 잘 듣고 그림 그리기	듣기	심화
	4	• 주사위 놀이	말하기/듣기	기본
	6	• 빙고놀이	듣기	기본
	7	• 카드집기 놀이 • 인물 완성하기 놀이 • 인물 묘사하기 놀이	듣기/말하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기본 기본 심화
	8	• 카드 집기 놀이	듣기/말하기	기본
	11	• 차이점 찾기	말하기/듣기	기본
	14	• 전화번호 적기 놀이	듣기	보충
	15	• 추측 빙고 놀이	듣기/말하기	기본
기본·심화·보충활동의 총 게임수=79			듣기=3 말하기/듣기=9	
6	2	• 말 전하기 놀이	말하기/듣기	기본
	4	• 생일 표시하기	듣기	보충
	5	• 물건 사기	듣기	기본
	6	• 카드 빨리 치기 놀이	듣기	기본
	7	• 문장 카드 집기 놀이	듣기	심화
	9	• 제자리 찾기 놀이	듣기	기본
	10	• 카드 집기 놀이	듣기	기본
	11	• Jigsaw reading	듣기	보충
	12	• 큰 소리로 말 전하기 놀이	듣기	기본
	13	• 듣고 ○,×하기	듣기	심화
	14	• 문장 만들기 놀이	듣기	기본
15	• 문장 수정하기 놀이	듣기	기본	
기본·심화·보충활동의 총 게임수=80			듣기=10 말하기/듣기=2	

3) 초등영어 교과서 듣기 활동 유형 분석

앞서 살펴본 Let's review/Review, Let's Play/Activity에 제시된 활동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 교과서에 나타난 학년별 듣기 활동 유형

유형	듣기 활동 유형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	그림 보고 듣기	8	8	16	16	48
2	듣고 따라하기	8	8	16	16	48
3	노래하기	8	8	10	12	38
4	챗하기	8	8	6	4	26
5	듣고 쓰기	3	5	10	7	25
6	듣고 대답하기	2	8	·	2	12
7	듣고 연결하기	2	2	3	2	9
8	듣고 고르기	6	2	3	6	17
9	듣고 배열하기	·	1	1	5	7
10	듣고 표시하기	2	1	1	4	8
11	말 전하기	·	1	·	1	2
12	듣고 색칠하기	2	·	·	·	2
13	듣고 그리기	·	·	1	·	1
	계	49	52	67	75	243

<표 6>에서 유형1~4의 그림보고 듣기와 듣고 따라하기, 노래하기, 챗하기는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peat, Let's sing/Chant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3~6학년의 모든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듣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 나타난 듣기 활동 유형수를 보면, 3, 5학년은 10개, 4, 6학년은 11개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제시되고 있는 활동 유형이 10~11개로 비교적 다양한 활동이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림보고 듣기, 듣고 따라하

기와 같은 기본적인 듣기 활동 이외에 듣고 쓰기, 듣고 고르기, 듣고 대답하기와 같은 몇 가지 유형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Let's Play/Activity에 나타난 듣기 관련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7> Let's Play/Activity에 나타난 학년별 듣기 중심의 게임 비율

구분 \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듣기 중심 게임 수(개)	9	12	3	10	34
듣기·말하기 중심 게임 수(개)	7	4	9	12	32
제시된 총 게임 수(개)	46	49	79	80	254
① 듣기 중심 게임 비율(%)	19.57	24.49	3.8	12.50	13.39
② 듣기·말하기 중심 게임 비율(%)	15.22	8.16	18.37	15	12.60
①+ ②가 차지하는 비율	34.79	32.65	22.17	27.5	25.99

듣기 중심의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른 언어 기능보다도 듣기 기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3학년인 경우는 듣기와 말하기 두 영역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관련 게임 비율이 34.79%에 불과해 오히려 말하기 기능이 더 많은 비중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 듣기지도에 있어서도 듣기 중심 게임과 언어기능 통합형 듣기/말하기 중심의 게임을 비교해 보면 학년별로 듣기중심의 게임비율은 3학년 19.57%, 4학년 24.49%, 5학년 3.8%, 6학년 12.50%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학습 도입 초기일 수록 발화를 지연하고, 듣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3학년(19.27%)은 4학년(24.49%)보다 듣기 중심 활동이 더 적다. 그리고 5학년에서는 듣기 중심 게임 비율이 3.8%로 6학년의 12.5%에 비해 차이가 크다.

그러나 영어학습 도입 초기인 3,4학년에서는 듣기/말하기 기능을 통합한 활동 보다는 발화를 지연한 듣기 중심의 게임 활동을 많이 적용하고 5,6학년 단계에

서 듣기/말하기 기능통합형 활동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서의 활동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듣기 이해확인을 위한 과업에 있어서는 좀더 과업의 형태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학년일수록 듣기/말하기와 같은 기능 통합적인 듣기 지도보다 중점적인 듣기 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르면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음성언어의 세부 듣기 능력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3~6학년 교과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듣기자료와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영어에 크게 의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듣기 입력 자료의 활용과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음성언어 세부 능력의 지도를 위한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V. 초등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선 현장에서의 영어지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더 바람직한 영어 듣기 지도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초등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

본 연구는 초등영어 듣기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듣기 지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의 듣기지도의 실태는 최근 2년 안에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제주지역 초등 영어 교사 114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말부터 4월초까지 2주간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제주지역 초등 영어교사들로 13개교 13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회수가 안 되었거나, 무응답이 많아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16부를 제외하고 총114부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 12.0(for windows)를 이용하여 응답유형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8> 설문조사 표집 현황

배부	회수	유효수
130	120	114

<표 9>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현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누적 백분율(%)
지도 학년	3학년	19	16.7	16.7
	4학년	28	24.6	41.2
	5학년	28	24.6	65.8
	6학년	32	28.1	93.9
	영어교과전담	7	6.1	100.0
합 계		114	100.0	
영어 교과 지도 경력	3년 미만	51	44.7	44.7
	3~5년 미만	34	29.8	74.6
	5년 이상	29	25.4	100.0
	합 계	114	100.0	
학급당 학생수	15명 미만	1	.9	.9
	15~25명 미만	9	7.9	8.8
	25~35명 미만	44	38.6	47.4
	35명 이상	60	52.6	100.0
	합 계	114	100.0	

<표 9>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에 관한한, 3학년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는 16.7%, 4학년, 5학년은 각각 24.6%, 6학년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는 28.1%를 차지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영어교과가 3~6학년으로 제한적인 점, 학급 규모가 큰 학교인 경우 대부분이 교과 전담 교사가 영어를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대상자들 중 교과전담은 6.1%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교과전담 교사들을 변수로 한 지도실태에서 의미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영어교과 지도 경력에 있어서 3년 미만인 교사가 44.7%, 3~5년 미만 29.8%, 5년 이상인 교사가 25.4%로 3년 미만인 교사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35명 이상이라고 답한 교사가 52.6%를 차지해 설문에 응한 교사의 절반 이상은 과인수 학급에서의 영어 지도 경험을 갖고 있다.

2) 조사 내용

설문 조사 내용은 <표 10>과 같이 초등 영어 교육에 있어서 ① 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언어의 기능과 실제 수업에서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영역, ② 듣기 입력 자료, ③ 듣기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활동유형, ④ 듣기 자료의 제시 방법, ⑤ 학생들이 겪는 듣기 이해의 장애 요인, ⑥ 듣기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 ⑦듣기 평가 분야로 구성하였다.

<표 10> 듣기 지도 실태 설문 문항 구성

조사 영역	관련 문항	문항번호
언어의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제 지도	-교사가 중시하는 언어의 기능과 실제 비중을 두고 지도 하는 영역 -단위수업에서 듣기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	1~3
듣기 입력 자료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듣기 자료	4
듣기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활동유형	-듣기전, 중, 후 단계에서의 활동	5~11
듣기 자료의 제시 방법	-Dialog 제시 방법(화면, 자막, 횃수)	12
듣기의 이해의 장애 요인	-학생들이 겪는 듣기 장애 요인	13
듣기 관련 평가	-듣기 평가 방법 -듣기 평가 실시상의 어려움	14~15
영어듣기지도의 어려움	-교사가 느끼는 영어 듣기 지도상의 문제점	16~17

3) 실태 분석 및 논의

(1) 초등 영어 교사가 중요시하는 언어의 기능과 실제 중점 지도 영역

초등 영어 교사가 중요시 하는 언어의 기능과 실제 수업에서 중점을 두고 지도하게 되는 영역 및 단위 수업 40분당 듣기 중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각각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중점 지도 기능

순위	중요하게 인식하는 언어 기능	백분율(%)	실제 중점 지도 언어 기능	백분율(%)
1	음성언어(듣기·말하기)	64.0	음성언어(듣기·말하기)	48.2
2	말하기	19.3	말하기	34.2
3	듣 기	13.2	듣 기	9.6
4	표 현(말하기·쓰기)	1.8	표 현(말하기·쓰기)	5.3
5	문자언어(읽기·쓰기)	.9	이 해(듣기·읽기)	1.8
6	이 해(듣기·읽기)	.9	문자언어(읽기·쓰기)	.9
	합 계	100.0	합 계	100.0

<표 12> 단위 수업당 듣기 활동 시간

단위수업당 듣기활동 시간	지도 학년				영 어 교 과 전 담	전 체 (명)	백 분 율 (%)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5분 미만	0	0	1	1	0	2	1.8
5분 이상~10분 미만	12	12	9	14	2	49	43.0
10분 이상~20분 미만	5	13	15	15	5	53	46.5
20분 이상	2	3	3	2	0	10	8.8
전체(명)	19	28	28	32	7	114	100.0

교사들은 초등 영어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할 언어의 기능으로 음성언어(듣기·말하기), 말하기, 듣기, 표현(말하기·쓰기), 문자언어(읽기·쓰기), 이해(듣기·읽기) 기능 순으로 꼽고 있다. 실제 수업에서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영역도 음성언어, 말하기, 듣기, 표현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으나 인식 정도와 실제 지도 비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음성언어의 경우 64%가 초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기능이라고 꼽았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48.2%만이 이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말하기 기능은 그 중요성 인식(19.3%)에 비해서 실제 더 많은 비중(34.2%)을 두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언어 즉, 듣기·말하기 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듣기 영역을 수동적인 기능으로 인식하여 별다른 지도 절차를 생략하거나 듣기 이해의 과정이 인간의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므로 외적으로 인식이 쉽지 않은 반면 말하기 활동 과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영역이므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 말하기 중심 활동이 다른 언어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수업당 듣기 활동이나 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 12>와 같이 1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4.8%에 해당하고, 2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듣기 활동이나 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이란 교수·학습활동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듣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의식적으로 듣기 기능 지도를 위하여 할애하는 좁은 의미에서 듣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뜻한다.

초등 영어 교과에 주어진 연간 수업 시수가 3,4학년인 경우 34시간, 5,6학년은 68시간이므로, 결국 일주일에 3,4학년은 40분도 채 안되는 시간을 통해서 듣기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단위수업 40분간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듣기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국어 습득 과정이 보여 주듯이, 제 2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영어 듣기 지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주당 1~2시간의 수업으로 듣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교사들이 많았다. 이는 영어학습 입문기인 초등 영어 듣기지도에 있어 주어진 시간 안에 좀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듣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듣기 자료

초등 영어 수업에 있어 학생들에게 많이 입력되는 듣기 자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표 1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3>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듣기자료

듣기 자료	1순위	2순위	3순위
교과서의 dialog, 챗트, 노래	90.4	8.8	.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영어	7.9	68.4	7.9
잘 알려진 교과서 외 영어노래	.9	11.4	56.1
영어 비디오	.9	4.4	14.9
짧은 이야기 녹음 자료	.	1.8	6.1
교사가 읽어주는 짧은 이야기 자료	.	2.6	3.5
EBS 영어 교육방송	.	2.6	11.4
합 계	100.0	100.0	100.0

교사들이 영어 수업에 있어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교과서의 dialog, 챗트, 노래’ 이고 그 다음으로 ‘교사가 사용하는 교실영어’, ‘잘 알려진 교과서 외의 영어 노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중 90.4%가 ‘교과서의 dialog, 챗트, 노래’ 를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1순위로 선택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수업에 있어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듣기 자료가 전적으로 교과서의 dialog나 chant, 노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듣기자료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듣기 지도 단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활동유형

듣기 지도는 크게 듣기 전(pre-listening), 듣기 중(while-listening), 그리고 듣기 후(post-listening)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듣기 지도 단계에 따라 교사들이 지도해본 방법이나 활동을 복수 응답 하도록 하여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① 듣기전(pre-listening) 활동

다음 <표 14>를 보면 듣기전 활동으로 주로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기, 들을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주기, 들을 내용에 대한 제안, 가능성, 예측 등을 해보기, 듣기 활동을 위한 지시나 안내하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듣기전 활동 적용 빈도

활동 내용	빈도(명)	백분율(%)
들을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주기	79	24.5
내용과 관련된 읽을거리 제공	7	2.2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기	89	27.6
해당 주제나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23	7.1
제안, 가능성, 예측 등을 해보기	55	17.1
듣기 활동을 위한 지시를 분명히 하기	49	15.2
듣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생각해보기	16	5.0
별다른 안내나 활동을 하지 않음	4	1.2
계	322	100.0

듣기전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목적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한 좀더 다양한 듣기전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듣기중(while-listening) 활동

앞서 제시된 <표 13>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의 dialog, 챗트, 노래’를 듣기자료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듣기중 단계에 있어서도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듣기중 활동 운영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교과서 활동을 수정·응용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도 35%나 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위주로 지도하는 이유로는 다른 활동을 적용할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 적합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수업 준비 시간 부족, 교수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표 15> 듣기중 활동 지도 방법

활동 지도 방법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교과서활동 수정·응용하여 적용	47	41.2	41.2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그대로 적용	35	30.7	71.9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가끔 적용	31	27.2	99.1
교사가 계획한 활동 위주	1	.9	100.0
합 계	114	100.0	

또 듣기중 활동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활동과 교사들의 입장에서 듣기 지도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표 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6 > 흥미있는 듣기중 활동과 효과적인 듣기중 활동

활동내용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활동		효과적이었던 활동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시나 명령에 따라 신체움직이기	31	27.2	28	24.6
특정소리나 단어에 신체반응하기	22	19.3	21	18.4
그림을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18	15.8	16	14.0
들으면서 해당그림에 체크하기	9	7.9	11	9.6
듣고 그림그리기	9	7.9	5	4.4
표를 완성하기	7	6.1	5	4.4
듣고 빈칸에 단어나 문장쓰기	5	4.4	6	5.3
보기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기	3	2.6	2	1.8
Ture/False표시하기	3	2.6	5	4.4
단어나 문장 들려주고 받아쓰기	3	2.6	6	5.3
별다른 흥미/효과를 보인 활동 없음	3	2.6	3	2.6
화자, 말한 느낌 의도에 관한 토론하기	1	0.9	.	.
본문을 듣고 잘못된 설명, 그림고치기	.	.	1	.9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	.	2	1.8
들은 내용으로 사건추리하기	.	.	3	2.6
합 계	114	100.0	114	100.0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듣기중 활동은 지시나 명령에 따라 신체움직이기(TPR), 특정소리나 단어에 신체반응하기, 그림을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듣기 지도에 효과적이었더라고 생각하는 활동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흥미를 보인 활동은 교사들도 듣기지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듣기후(post-listening) 활동

듣기후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수정·응용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26%로 듣기중 활동의 35%보다 적었다.

비교적 많이 적용하고 있는 듣기후 활동으로는 Role-play, 화자와 상황 파악하기, 차트, 서식, 표 채우기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활동이 듣기 후 활동 전체의 48.1% 차지해 듣기후 활동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7> 듣기후 활동 지도 방법

활동 지도 방법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교과서활동 수정·응용하여 적용	71	62.3	22.8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그대로 적용	26	22.8	85.1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가끔 적용	17	14.9	.
교사가 계획한 활동 위주	.	.	100.0
합 계	114	100.0	

<표 18> 듣기후 활동 적용 빈도

활동 내용	빈도(명)	백분율(%)
순서나 등급 매기기	18	7.7
차트, 서식, 표 등을 채우기	29	12.4
내용을 요약하기	21	9.0
화자와 상황을 파악하기	48	20.6
들은 내용에 대한 요점을 문장으로 완성하기	15	6.4
Role-play하기	64	27.5
내용과 일치하게 연결하기	28	12.0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활동	10	4.3
합 계	233	100.0

(4) 듣기 자료의 제시방법

대부분의 교사들이 듣기자료로서 교과서의 dialog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조 자료인 CD-Rom title을 이용해 자료를 들려 줄 때 이를 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물었다.

먼저 화면과 음성의 제시방법에 있어서는 다음 <표 19>와 같이 52.2%의 교사들이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답했고, 화면을 먼저 보여주고 내용을 추측하도록 한 후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33%,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내용을 추측하도록 한 후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들려준다는 13.9%로 나타났다.

듣기 자료를 들려주기 전에 화면이나 음성을 먼저 제시하여 내용을 추측해보도록 하는 방법은 듣기 활동을 위한 지시나 안내를 분명히 해주는 듣기전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은 듣기 이해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화면과 음성이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집중력이 청각과 시각으로 분산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음성을 듣고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그림에 의존하여 내용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dialog 화면 제시 방법

제시 순서	빈도(명)	백분율(%)
· 화면 + 음성 동시	60	52.2
· 화면 ⇒ 내용 추측하기 ⇒ 화면 + 음성	38	33.0
· 음성 ⇒ 내용 추측하기 ⇒ 화면 + 음성	16	13.9
합 계	114	100.0

아래의 <표 20>에서 보듯이 음성과 자막의 제시 방법에 관한 물음에서 54.4%의 교사들이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자막을 제시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음성과 자막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보다 음성 먼저 제시되는 것이 학생들이 문자에 의존해 이해하려는 경향을 줄여 듣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듣기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dialog를 들려주는 횟수를 평균적으로 조사한 결과 2.9회 정도 들려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듣기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자막제시 방법

제시 순서	빈도(명)	백분율(%)
· 음성 ⇒ 자막	62	54.4
· 자막은 끝까지 제시 않음	16	14.0
· 음성 + 자막 동시	16	14.0
· 3~4학년 (문자 제시 없음)	16	14.0
· 자막 ⇒ 음성	4	3.5
합 계	114	100.0

(5) 듣기 이해에 있어 장애 요인

학생들이 주로 어떤 요인 때문에 듣기 이해에서 곤란을 느끼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서 <표 21>과 같이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문형, 발화속도, 음운현상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의 부재를 곤란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경우는 4.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 주어지는 듣기 자료가 대개 일방적인 듣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실이라는 제한된 의사소통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상황과 같은 청자와 화자간 상호작용적 요소를 고려한 듣기지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듣기 이해 장애요인

듣기 이해에 있어 장애 요인	빈도(명)	백분율(%)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문형	69	33.5
발화 속도	50	24.3
음운현상에 익숙하지 않을 때	40	19.4
발음이나 억양	37	18.0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의 부재	10	4.9
합계	206	100.0

(6) 듣기 평가 방법

듣기를 실시할 때 적용해본 평가 방법으로 관찰법의 면접법, 체크리스트, 지필평가, 구술평가, 받아쓰기 등의 순서로 잦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교사들이 듣기평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화기록법,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과인수 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 상황을 일일이 기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즉시성이라는 듣기의 성격상 이를 평가한 내용을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은 단순한 평가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

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 평가방법으로는 그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 듣기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빈도(명)	백분율(%)
관찰법	일화기록법	9	1.9
	체크리스트	73	15.7
	평정척도법	13	2.8
	면접법	78	16.8
자기평가		24	5.2
실기평가		45	9.7
상호(동료)평가		44	9.5
포트폴리오		14	3.0
프로젝트법		.	.
구술법		50	10.8
지필검사		64	13.8
받아쓰기		50	10.8
합 계		464	100.0

교사들이 듣기 평가 실시에 있어 겪는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표 23>과 같이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교사의 영어 구사능력 한계, 평가문항 제작의 어려움의 순서로 많은 빈도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학생 개개인의 듣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교사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듣기평가가 좀더 수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 또 듣기평가 문항제작이 쉽지 않고 자료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3> 듣기평가의 곤란요인

듣기평가의 곤란요인	빈도(명)	백분율(%)
평가문항 제작의 어려움	42	18.4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65	28.5
듣기 평가 기술 부족	38	16.7
교사의 영어 구사능력 한계	46	20.2
음성, 음운 현상과 관련 지식	20	8.8
학습기자재 기능 미흡 조작 기능의 미숙	15	6.6
듣기평가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2	.9
합 계	228	100.0

(7) 듣기 지도에 있어서의 곤란 요인

듣기 지도를 함에 있어 느끼는 곤란 요인은 아래의 <표 24>에서 보듯이 학급당 학생수, 단위 수업당 학습할 내용, 교사의 영어 구사능력의 문제, 듣기 보조 자료, 듣기 교수방법 등의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듣기 지도의 곤란 요인

듣기 지도의 곤란 요인	빈도(명)	백분율(%)
듣기 보조 자료의 부족	40	16.3
단위 수업당 학습 내용 과다	45	18.4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48	19.6
듣기 교수방법의 부족	38	15.5
영어 구사능력의 한계	41	16.7
음성, 음운 현상과 관련한 지식의 부족	22	9.0
학습기자재 기능 미흡 조작 기능의 미숙	9	3.7
듣기지도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2	.8
합 계	245	100.0

듣기 지도와 관련하여 초등영어 지도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관한 개방형의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45.6%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응답했다. 응답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학생, 교사, 교육과정, 교육 여건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학생간 듣기 능력의 수준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듣기 내용에 있어 짧고 간단한 문장이 반복 제시되는 형식인데 학생간 수준차가 크다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이를 지루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별 듣기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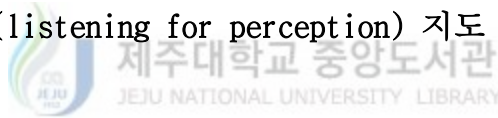
교사와 관련한 문제로는 언어 구사능력의 한계, 관련지식의 부족 등을 들었었다. 교육 여건의 문제로 학생수, 교사의 잡무, 영어사용 환경을 들 수 있다.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많다보니 학생 개인의 듣기 능력과약이 어렵고 수준차 또한 심해 효율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업무가 많아 수업연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 사용 환경의 문제라는 것은 영어 수업 시간 외에 교실 밖에서는 배운 영어 표현을 적용해 볼 기회가 거의 희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어를 하나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쯤으로 여겨 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주어진 연간 34, 68시간으로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듣기 지도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은 교육 내·외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교육제도나 정책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적으로는 수업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한 교사의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 방안

지금까지 앞서 논의된 교과서에서의 듣기지도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듣기 지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세부 듣기 능력을 위한 지각 청취 지도의 필요성, 둘째,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의 필요성, 셋째, 절대적인 듣기 입력시간의 부족에 따른 집중적 듣기지도의 필요성, 넷째, 아동의 수준차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 수업을 위한 영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토대로 좀더 나은 현장에서의 초등영어 듣기 지도 개선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지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각 청취(listening for perception) 지도



여기서 지각 청취(listening for perception) 지도란 말 전체의 이해(macro-skill)보다는 발음, 낱말, 구조의 청취와 같은 세부능력(micro-skill)의 향상을 위해 발음, 발음 조합, 억양 등의 구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청취지도의 방법을 말한다.

지도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듣기’ 성취 기준에 따르면 ‘영어의 소리와 강세, 리듬, 억양을 듣고 식별한다’ 라고 하여 음성언어 세부 능력의 성취를 명시하고 있다. 영어 초급단계의 학습자에게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세부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말 전체의 의미 이해를 위해 필요한 학습이므로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되는 3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국어에 없는 영어 발음을 지도할 때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게임 요소를 도입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저학년들의 경우는 언어유희를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듣고 흉내 내고 단순하게 따라하는 행동에 재미를 느낀다.

차경환·신동일(2001)은 지각 청취(listening for perception)지도방법을 단어와 문장단위로 제시하였다. 단어 단위에서는 반복, 구별, 옳은 단어 찾기, 옳은 단어 쓰기와 문장 단위에서는 반복청취, 문장을 보며 강세, 비강세 위치를 파악하는 연습을 제안하였다.²⁴⁾

Rivers(1981)는 외국어 음성 지도단계로 첫 번째는 정확한 조음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습관화될 때까지 단어나 문장을 반복시킨다. 두 번째 단계는 최소 대립어에 의한 청각 식별 연습을 한다. 청각 식별 연습 후엔 학생들에게 특정 음을 처음엔 간단한 구절 속에서, 그 다음엔 긴 문장 속에서 발음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로 일상 언어활동에서 그 발음을 주의 깊게 들어본 후 정확하게 발음해 볼 것을 제안²⁵⁾하여 발음을 비롯한 음성언어지도가 학생들이 반복하고 외어야 할 언어 자료의 문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지각 청취 지도 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어 단위의 지도

- ① 반복: 비교적 짧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반복하게 한다.
- ② 구별: 비슷한 발음의 구별 능력을 알아본다. 두개씩 쌍으로 발음하여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거나 리듬이나 운율이 반복되면서 이야기나 노래가 진행되는 자료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4) 차경환·신동일(2001), 「영어 청취론」, 서울: 한국문화사, pp. 99~100.

25) W. M. Rivers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p. 1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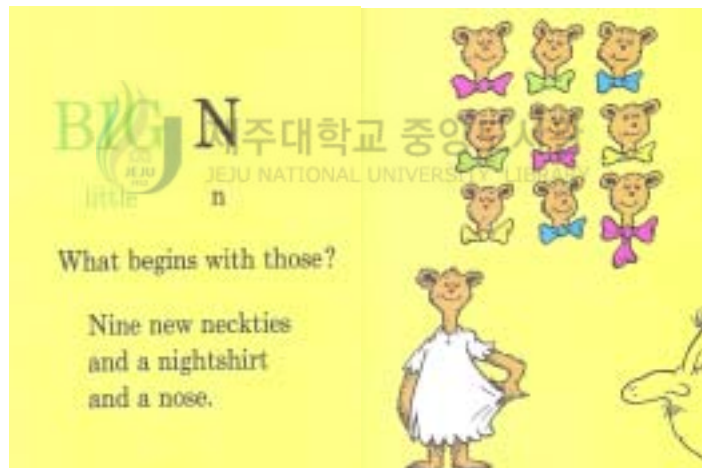
< 지도의 예1 > 최소대립어를 통한 음의 식별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같은 소리로 연결된 것에는 O, 다른 소리로 연결된 것에는 X표 하세요.

- ①big-pig ②pig-pig ③goat-coat ④doll-tall

< 지도의 예2 > 반복과 구별을 통한 지도의 참고자료

Dr. Seuss's ABC에서 발췌한 N을 활용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단어와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의미 이해를 도와주고 원어민의 음성이 녹음된 오디오 자료를 이용하면 영어의 리듬과 운율을 인식시키고자 할 때 적합한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옳은 단어 찾기(reading): 발음된 단어를 선다형 문제지에서 찾는 연습
날개의 낱말을 듣고 찾는 연습 후에는 대화 속에 나오는 단어를 찾도록 발전시킨다. 아동의 수준에 따라 보기의 단어를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하여 찾도록 할 수 있다.

< 지도의 예 >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대화 속에 나오는 물건을 찾아 번호를 쓰세요

【보기1】 ①



②



③



④



【보기2】 ① pen

② pencil

③ bag

④ book

【들려줄 내용】 Q: What's this?

A: It's a pen.

④ 옳은 단어 쓰기(writing): 주어진 발음을 직접 써 보는 연습

<지도의 예>

초보 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어를 다 쓰도록 요구하지 말고 일부 철자가 빠진 단어 카드를 제시하여 단어를 들려주고 빈 곳의 철자를 채워 단어를 완성하게 한다.

	o	l	d
--	---	---	---

교사: 'cold'

학생: 'c'를 찾아 단어를 완성한다

(2) 문장 단위의 지도

① 반복청취: 비교적 짧고 쉬운 문장을 반복하여 들려주고 축약, 강세 단어에 유의 하도록 한다.

② 문장을 보며 강세와 비강세 위치 파악 연습: 문장을 제시하여 듣고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은 강세는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비강세는 ()로 표시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인식하게 한다.

기본문장: I'm terribly tired; I think I'll go and have a rest.

강 세: I'm tErribly tIred; I thInk I'll gO and have a rEst.

비강세: (I'm) ter(ribly) tired; (I) think (I'll) go (and have a) rest.

이밖에도 김종훈(2001)은 강세음절과 비강세 음절 유형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손가락이나 연필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기(tapping), 강세 음절은 손뼉을 치게 하고, 비강세 음절은 손뼉을 벌리게 하여 강약이 교체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도하기, 강세음절은 큰 원, 비강세 음절은 작은 원으로 표시하기, 영어의 문장에 강세 음절에는 DA로 표시하고 비강세 음절에는 da로 표시하여 DA를 da보다 더 강하게 발음하도록 하면서 리듬을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

③ 억양의 지도 :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의 올림과 내림이 화자의 의도를 반영하거나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의 예>

들려주는 문장에서 억양의 올림과 내림을 잘 듣고 알맞은 문장부호를 고르세요.

【보기】 ① . ② ? ③ !

【들려줄 문장의 예】

1. What day is it today
2. You look happy today
3. Really

26) 김종훈(2001), 「영어 음성음운 교육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p. 146.

2)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과서 분석과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듣기 연습의 형태는 대부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자료인 dialog를 듣고 영어의 의미 확인을 위한 문답활동이나 집중해서 듣고 단서를 찾아 질문에 맞는 답 고르기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듣고 학습자로 하여금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활동은 게임 형식에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듣기 입력 자료의 활용과 노래와 챗트를 활용한 듣기 지도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1) 다양한 듣기 입력 자료의 활용

앞서 살펴본 듣기지도의 원리에서 배두분(1997)이 말한 재미로 듣는 연습의 단계와 같이 의미를 확인하면서 듣되 내용을 회상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선별하여 듣도록 하는 듣기 연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것은 dialog 보다 긴 분량의 짧은 극이나 인물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평범하게 반복되는 말로 구성된 듣기 자료들로 연속적인 사건의 연결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는 듣기 전략을 요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는 학생들의 흥미나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어민의 생생한 발음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듣기 지도 자료로서 유용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초등학습자들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영어권 국가들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어린이용 프로그램도 이에 못지않은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면 동화, 노래 등 다양한 청취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유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청취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초등학생을 위한 청취 사이트

사이트명	주 소	설 명
Brain POP	http://www.brainpop.com/	과학에 관한 상식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설명을 들려주는 사이트
PBS Kids	http://www.pbs.org/kids/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인터넷 프로그램, PBS의 어린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텔레토비	http://www.bbc.co.uk/education/teletubbies	영국 BBC방송국에서 만든 텔레토비 공식홈페이지로 rhymes, song, story 자료 외에도 공작, 과학학습, 색칠공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디즈니	http://disney.go.com	월트 디즈니 홈페이지로 아동들에게 익숙한 캐릭터의 짧은 영상자료들을 볼 수 있다.
Sesame Street	http://www.ctw.org/sesame	song, story자료Sesame Street 어린이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다양한 song, story가 플래시 자료 형태로 제공된다.



(2) 노래와 챗트를 활용한 듣기 지도

학생들에게 입력되는 대부분의 듣기 자료는 교과서의 dialog, chant, song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chant나 노래 따라 부르기는 아동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듣고 따라하기를 통해 외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듣기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래나 챗트는 반복되는 표현과 문장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익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챗트는 리듬과 강세를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여 듣기지도에 적용한다면 지각청취 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듣기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듣기 지도 아이디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 듣기전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 ① 듣기전 활동으로 노래 제목만 알려주고 노래가사에 어떤 단어/ 문장이 등장할지 예상해 보게 하거나 수준에 따라서는 써 보게 할 수도 있다.
- ② 노래를 들려주기 전에 가사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듣기의 초점 어디에 둘 것인지 분명히 제시한다. 자기가 예상한 단어/문장이 등장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면 듣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③ 또는 노래 가사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도록 듣기를 위한 동기를 제시할 수도 있다.

나) 듣기중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 ① 노래를 들으면서 듣기전 활동으로 예상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동그라미나 V표시를 해보도록 한다.
- ② 노래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게 한다.
- ③ 학생들이 노래를 듣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구절 또는 문장을 말하면 이를 칠판에 쓰고 다시 들어보도록 한다.
- ③ 이때 전체적으로 노래를 다시 들려주면서 해당 단어/문장이 나오면 손뼉을 치거나 특정 motion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노래 가사를 제시할 경우에는 특정 어휘를 빈칸으로 남겨 들으면서 채워 넣도록 할 수도 있다.

다) 듣기 후 활동

- ① 노래 가사에 나타난 표현들을 이용하여 dialog나 role-play 활동을 해 보도록 한다.
- ② 노래를 익힌 후 노래와 관련된 율동이나 모션을 따라하거나 아동들 수준에 따라서는 스스로 창작해 보게 할 수 있다.
- ③ 학습자와 노래의 수준에 따라 노래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받아쓰기 하도록 지도 할 수 있다.

④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거나 노래가사를 듣고 기억하여 가사가 적힌 카드를 순서대로 바르게 놓는 게임으로 응용할 수 있다.

3) 집중적 듣기 지도

집중적 듣기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받아쓰기는 다인수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듣기 능력 개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왔다. 받아쓰기는 음성 언어에 대한 집중된 주의력을 높여 주고, 듣기 능력 및 문법 구조 파악의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오류를 실감하고 들은 음성을 시각적인 확인이 가능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의 음운적, 문법적, 어휘 면에서의 약점을 발견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학생 개개인의 듣기 능력 파악에 도움을 준다.

듣기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받아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 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경아(2002)는 받아쓰기를 통한 영어 듣기 지도 연구를 통해 받아쓰기 지도를 위한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받아쓰기는 평가의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의 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받아쓰기가 고안되어야 한다. 셋째, 받아쓰기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듣기에 곤란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문항을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받아쓰기는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높인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다른 흥미있는 활동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받아쓰기를 통하여 듣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적으로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²⁷⁾.

이와 같이 받아쓰기가 초등학생들에게 단순한 철자법 쓰기가 아닌 효율적인 듣기 지도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받아쓰기 자료의 수준과

27) 남경아 (2002), “받아쓰기를 통한 초등영어 듣기 지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p. 56~57.

방법이 고안하여야 한다.

Oller(1972)는 받아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읽어주는 속도라고 지적하고 가장 바람직한 속도는 일상 대화의 속도라고 보았다. 받아쓰기에서 들려줄 내용은 세 번 들려주되,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 속도로 읽어주고, 두 번째는 4-7개의 단어마다 적당한 휴지를 두어 읽어 준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받아쓴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상 대화의 속도로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²⁸⁾.

교사의 발화에 의한 듣기자료는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으나 원어민 화자의 강세, 억양, 리듬이나 발화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원어민 화자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받아쓰기 결과는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써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관된 평가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정확하게 썼거나 생략한 경우, 철자오류가 있으나 이해 가능한 단어인 경우, 철자오류가 있고 이해 불가능한 단어를 쓴 경우와 같이 답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맥이나 의미, 비슷한 발음 등을 추측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쓰도록 유도하고 이를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채점기준이든 그 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 자신도 자신들의 듣기능력의 변화된 모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듣기 입력의 장으로서의 어학 실습실의 설치

학생의 수준차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어학실습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학실습실은 학생들의 수준차에 따른 듣기지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교사는 모니터 장치를 이용하여 학생을 개인지도 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이해정도에 따라 듣기 자료의 반복청취가 가능하고, 녹음테이프에

28) 남경아 (2002), 상계서, p. 32에서 재인용.

서 나오는 외국어 화자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자기 교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학습내용이나 진도를 학생 개인의 능력에 알맞은 속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진도에 따른 학습 내용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V. 결 론

듣기 능력은 영어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본 능력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듣기 능력은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노출되어 구두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수동적인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입력되는 언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효과적인 듣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과, 초등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 지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찾고 효과적인 듣기 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듣기지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듣기의 개념, 특징, 과정을 살펴본 다음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에서의 듣기 성취기준과 듣기 지도 방법과 3~6학년 초등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활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듣기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듣기지도의 실태에 관한 설문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에서의 듣기지도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듣기 지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 첫째, 세부 듣기 능력을 위한 지각 청취 지도의 필요성, 둘째,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의 필요성, 셋째, 절대적인 듣기 입력시간의 부족에 따른 집중적 듣기지도의 필요성, 넷째, 아동의 수준차와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 수업을 위한 영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균형있는 듣기 연습을 위한 지각 청취 지도를 위하여 단어와 문장 단위의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다양한 듣기 연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노래와 첸

트를 활용한 듣기 지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셋째, 집중적 듣기 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수준별 받아쓰기 제안한다.

넷째, 과인수 학급, 아동의 수준차에 따른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 수업을 위한 영어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어학실습실의 설치를 제안한다.

효율적인 영어 듣기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좀더 나은 듣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석(2003), “초등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듣기 지도”, 「교육논총」, 22권.
경인교육대학교.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종훈(2001), 「영어 음성음운 교육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기정(2003), “효율적인 초등영어 학습을 위한 게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철 외(1999a), 「초등영어 교수법」, 서울:학문출판(주).
- 김진철 외(1999b), 「초등영어지도법」, 서울:한국문화사.
- 남경아(2002), “받아쓰기를 통한 초등영어 듣기 지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두분(1997), 「초등학교 영어 교육」, 서울:한국문화사.
- 이완기(2000), 「초등영어교육론」, 서울:문진미디어.
- _____ (2003), 「영어 평가 방법론」, 서울:문진미디어.
- 이재희(1994), “국민학교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및 평가 모형”, 차경환 편,
「영어 청취력 교육론」,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종혁(1990), “노래를 통한 영어 듣기 지도의 효과”, 「영어교육」 39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전현주(2003), “노래를 통한 초등 영어 교육”,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재영(2002), “노래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경환 편(1996), 「영어 청취력 교육론」, 한국영어교육학회.
- 차경환·신동일(2001), 영어 청취론, 서울:한국문화사.
- 황홍주(1988), “영어 받아쓰기를 통한 청취력 신장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Broughton, G. et al(1980),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ondon:Routledge & K. Paul.
-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NY:Pearson Education.
- Celce Murcia, M.(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Boston: Heinle & Heinle.
- Clark, H. and Clark, E.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Y: HBJ.
- Krashen, S. D.(1987),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nglewoo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Krashen, S. D. & T. D. 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and Alemany.
- Helgesen Marc (2003), "Listening", in David Nunan ed,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 Grow-Hill.
- Morley, Joan.(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 In Marianne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f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 Morley, H. J. and Lawrence, M. S.(1971), "The Use of Films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22, No. 1.
- Nunan David, ed(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 Grow-Hill.
- Osman, A. H. & L. Wellman.(1976). *Hey teacher! How Come They Are Singing in the Other Class*. In R. Light & A. Osman(Eds.). *Collected Papers in TESL and Bilingual Education: Themes, Practices, Viewpoints*, New York: Teachers College.
- Paulston, C. B. & M. N. Bruder.(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 Winthrop.
- Peterson, Pat Wilcox.(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 In Marianne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Rivers, W. M. & M. S. Temperley.(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1983), “Listening comprehension” , *TESOL Quarterly*.
Vol.17 No.2

Rivers, W. M.(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Rost, M.(1990),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London: Longman.

Taylor, Harvey M.(1982). “Teaching Reading and Teaching Listening” ,
English Teaching. Vol.24 No.29~49.

Ur, P.(1996), 「영어 청취 지도론(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
차경환 역(1997), 서울: 한국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ementary English
Listening Education**

Park, Mi-jeu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Wan-song

Listening comprehension is one of the primary skills to be acquired to enhance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object of English education. So far, however, it has been viewed as a passive skill that is naturally acquired by exposing students to the target language and through oral practices. But it's not easy for children to improve in listening comprehension in Korean EFL context typified by an extreme lack of exposure to the target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types of listening activities are included in the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according to the 7th national curricula and how listening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elementary schools in an effort to find workable solutions to the current listening education problem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Literature on listening education has been reviewed to defin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listening, and the 7th national elementary English curricula have been analyzed to find out their achievement standard and how listening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And what sorts of listening activities are presented by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for grades 3 to 6 has been investigated, and a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elementary English teachers to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how listening guidance is actually provided.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erceptual listening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boost the overall listening comprehension of learners. Second, a wide variety of listening practices are called for. Third, more intensive listen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ince the existing amount of time available for listening input is absolutely inadequate. Fourth, better teaching environments should be prepared to allow for individual differences and boost the efficiency of listening education.

There are some suggestions concern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First of all, teaching by words and sentences to offer perceptual listening education and balanced opportunities for practice are necessary. Secondly, a broad range of materials, songs and chants should be put to use to ensure diverse chances for listening practice. Thirdly, differentiated, level-based dictation is recommended to intensify listening education. Fourth, given oversized cla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learners, language labs should be installed to create better teaching environments and raise the efficiency of listening instruction.

To make English listening education more successful, teachers should put sustained efforts into reinventing themselves to tide over various difficul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Yet their efforts will be

nullified unless our nation pays growing attention to generating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s. If teacher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direct more energy into offering better education, listening education will rise to a higher level.



부 록



<부록1>

초등영어 듣기 지도 실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 업무로 바쁘신 선생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설문지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듣기지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중한 연구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성껏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박미정 드림-



■ 설문요령 ■

- 질문을 잘 읽고 해당 번호 앞의 ___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응답’ 이나 ‘전부√표’ 이외의 질문은 하나의 답변만 골라 주십시오.
- 보기 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영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최근 영어 지도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에 응해주시고 경험 학년을 지도 학년에 표시해 주십시오.
- 영어교과 전담인 경우는 지도 학년을 ()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

1. 지도 학년: 3학년 _ 4학년 _ 5학년 _ 6학년 _ 영어교과전담 ()
2. 영어교과 지도경력: 3년 미만 _ 3~5년 미만 _ 5년 이상 _
3. 학급당 학생수: 15명 미만 _____ 15~25명 미만 _____
25~35명 미만 _____ 35명 이상 _____

- __②차트, 서식, 표 등을 채우기
- __③내용을 요약하기
- __④화자와 상황을 파악하기
- __⑤들은 내용에 대한 요점을 문장으로 완성하기
- __⑥Role-play하기
- __⑦내용과 일치하게 연결하기
- __⑧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 활동

12. 영어 교과서 Look and Listen의 Dialog의 내용이나 듣기자료(Listening Text)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방법	
· 화면제시 없이(깜깜이 기능사용) 음성만 먼저 들려준다	
· 소리 없이 화면만 먼저 제시하고 내용을 추측하도록 한 후 음성을 들려준다	
· 화면과 음성을 동시에 들려준다	
· Dialog를 들려 주지 않음	

자막 제시 시기	
· 음성과 자막을 동시에 보여 준다	
·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자막을 나중에 보여 준다	
· 자막을 먼저 보여주고 음성을 나중에 들려 준다	
· 자막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 해당사항 없음(문자 제시 없음)	

☞ Dialog를 들려주는 횟수 ()번

13. 영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듣기 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은 주로 어떤 문제와 관련한 것이었습니까?(복수응답가능)

- __①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 __②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문형이 나올 때
- __③발음이나 억양에 익숙하지 않을 때
- __④음의 단출, 연음, 탈락, 동화, 약화 등에 익숙하지 않을 때
- __⑤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의 부재에서 오는 불완전한 이해

14. 영어 듣기능력 평가를 위해서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오른쪽 빈칸에 표 해주십시오.(복수응답가능)

【보기】

평가방법		사용 경험	평가방법	사용 경험
관찰법	일화기록법		상호(동료)평가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평정척도법		프로젝트법	
	면접법		구술법	
자기평가			지필검사	
실기평가			받아쓰기	

기타()

15. 어린이들의 듣기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평가문항 제작의 어려움
- ②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 ③ 듣기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 부족
- ④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의 한계
- ⑤ 음성, 음운 현상과 관련한 지식의 부족
- ⑥ 듣기 자료 매체의 속도 조절, 반복 기능과 같은 조작기능의 미비나 미흡
- ⑦ 듣기평가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6. 선생님께서는 영어 듣기 지도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듣기 보조 자료의 부족으로 다양한 청취자료 투입이 불가능 한 것
- ② 단위 시간 당 학습할 내용의 과다
- ③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 ④ 듣기 교수방법의 부족
- ⑤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의 한계
- ⑥ 음성, 음운 현상과 관련한 지식의 부족
- ⑦ 듣기 자료나 학습기자재의 속도 조절, 반복 기능과 같은 조작기능의 미비나 미흡
- ⑧ 듣기지도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7. 초등영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듣기 지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